쓰임 받음은 재활용이다

(롬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쓰임 받음은 재활용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부엌살림을 하실 때 꼭 필요한 도구가 도마입니다, 도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마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데 어떨 때 과일 깎아온 것을 먹으면 그 과일에서 김치냄새나 또 온갖 잡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마 위에서 과일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마라고 하는 게 그 위에서 끼니때마다 새 김치를 꺼내서 썰지요, 생선 같은 것 토막을 치지요, 육류 등을 도마 위에 놓고 다지기도 하고 때로는 파나 마늘 같은 썰고 다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 냄새가 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팩으로 된 우유를 먹고 난 뒤에 1리터짜리 종이팩을 아래 위를 다 열어서 펼친 다음 깨끗이 씻어서 말립니다.
그렇게 말린 팩들을 하나씩 모아놓았다가 도마 위에 놓고 김치를 썬다든지 마늘을 빻는다든지 육류나 생선들을 손질할 때 사용하면 과일을 깎을 때도 절대 냄새가 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재활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몸으로 살기 때문에,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쓰신다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이 땅 위에서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심을 통해 이 몸으로 진행되어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은 반드시 폐품으로서의 몸을 드려야만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폐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폐품이 된다는 얘기는 병이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품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몸을 전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만이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폐품처럼 여기는 내 몸을 재활용하신다는 뜻에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직도 내 마음이 내 몸을 느끼기를, '이건 꼭 필요해!' 무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 몸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느냐?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마음에 느껴지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더 이상의 용도가 없는 폐품이 되어야만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쓰시고 내 인생을 쓰실 수 있는 길은 재활용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즉 마음이 몸을 느낄 때, 몸을 떠나고 싶은 것이 마음의 소원일 때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폐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폐품처럼 될 때라야만 하나님은 그 몸을 재활용하시면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 위에서의 나의 인생을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켜야만 마음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목회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평생을 목회에 헌신하셔도, 새벽기도, 심방, 말씀, 전도, 모든 걸 다 하셔도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 게 아닙니다.
아직도 몸으로 진행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일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설령 그 소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하더라도 드려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의 내막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취지는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을 구분할 때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얘기고, 12장부터는 윤리에 관한 얘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관한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 '오직 우리가 하나님마음에 들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에 적힌 행위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기 이전의 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심장을 꺼내서 다른 대상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심장을 꺼내서 준다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내 마음이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대상에게 주는 것입니다.
행위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충동적인 반응으로서의 의식과 의지가 스며들어 있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 내 의지가 포함된 행위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먼저 어떤 대상에게 주는 믿음의 운동이 있고 나서 가능한 건데,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9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본 바로는 분명히 내가 결단했는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선택이었고 작정이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그 믿음의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행위의 차원,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이 땅 위에서 삶의 내용이 됩니다, 몸으로 직장에 가고, 가정에서 아빠로 엄마로 산다든지,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 모든 것이 몸을 가지고 하는 행위고, 이게 이 땅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러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삶의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던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그 행위 이전의 일인 믿음은 행위에 대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고 해서 능동적으로 말씀하고 권유하고 계시지만, 결국 이 얘기는 ‘너희가 11장까지 논의된 모든 믿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간다고 한다면 결국 너희 몸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이 드려지지 않았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논의된 믿음의 내용이 충실하게 우리에게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핵심주제를 말하면, 믿음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믿음에 대한 담론에서 배제되어 있던 행위적 차원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 속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다면 첫 번째는,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상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2절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1절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석책에 보면, 1절에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몸과 마음을 그냥 통합적인 인격으로 보아서, 1절의 몸과 2절의 마음도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건 진짜 큰 오해입니다.
몸과 마음은 사는 동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즉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할 수는 있는 겁니다.
마치 손과 손목과 팔이 분리될 수는 없어도 구분할 수는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쓰임 받기와 연관된 우리들의 신앙적 상태를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내가 임의로 내 소원을 따라서 벌여놓은 인생 판에다가 하나님을 모셔 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사업을 벌여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먼저 자식의 조기유학을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내가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경우가 돼버립니다.

둘째는, 내 인생에서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크게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기도를 하시면, 늘 손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꼭, '하나님아버지, 우리 첫째 손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의미에서 크게 된다는 것을 쓰임받는 것과 연결시키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많이 성숙해져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다!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쓰겠다!' 이런 결심.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고 있어서 내 인생을 멋지고 훌륭하게 진행하고 마감할 수 있는 길을 살펴보다가 그래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따져보자면 하나님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꾸미려고 하는 내 의도에 의해서 쓰임을 받으시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현 상황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몸을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드립니까?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왜 몸이 아깝습니까? 왜 몸이 죽을까봐 걱정이 됩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왜 무서워합니까? 이 몸이 죽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옷 하나 벗는 건데…
그런데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내 마음에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안 그러면 불만투성이인 거예요, 짜증만 나는 겁니다.
지금 신경질이 왜 나는가 하면,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몸이 죽는 걸 무서워하는 이유는, 내가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만족거리를 얻을 수 있는 일는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몸이 있으니 자식을 만나 자식을 보고 기뻐한다, 몸이 있으니 사업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합

니다, 몸이 있으니 돈을 쓸 수가 있어서 돈쓰는 재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몸이 있으니까 취미생활을 해서 취미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없게 되면 내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강한 의지를 발동해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얘기를 11장까지 하고나서 비로소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빈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연합할 때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하늘나라로 올라간 마음이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증표고 우리 마음에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은 몸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될 때 내 몸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가 없게 돼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은 몸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인생의 행복을 느끼려면 몸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려면 몸이 필요한데, 내 마음의 만족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아버지의 기운으로 만족하고 배불러졌기 때문에 도대체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내 몸이 쓸모없는 폐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 몸으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늘로 가득차지 않은 채로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한다고 해도, 선교지에서 내가 전하는 전도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될 때 기쁨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위해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에 나가서 승진을 바라지 않고 업적을 바라지 않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한 상태에서 직장에 나가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쓰임을 받는 겁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어떻게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됩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하늘로 채워져서 배부름과 기쁨이 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는 내 몸이 아무런 용도가 없을 때, 몸을 움직여서 비로소 기뻐지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 행위 하기 이전에 이미 기쁜 마음이 되었을 때라야만 우리는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폐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을 폐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번제를 하는 것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과 하나님아버지의 기운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참고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채워져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내 몸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에 나에게 폐품이 됩니다.
더 이상 이 몸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얻을 게 없어요.
이때에 내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몸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나의 인생의 하루를 당신의 뜻을 위해서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쓰임 받는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야 내 몸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시고 어떡하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어떤 거룩한 결단을 해도, 내 마음은 내 몸을 써서 내 마음의 만족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내 몸을 재활용으로서만 쓰실 수 있고, 나는 내 몸을 폐품으로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찌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 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이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폐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폐품이 된 내 몸을 재활용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서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